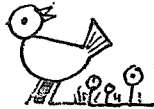


「전라남도」

技術移植으로 福祉마을 이뤘



전남새마을기술봉사단 전문위원

김 영 룡
(호남원예교 교사)

1. 가난속에 햇불 밝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75년 / 이 마을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광주에서 목포를 가다보면 넓다란 나주평야가 전개 된다.

일직 선상의 8차도로나 보이면서 시원스럽게 달리기를 8km 그 종착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아담한 마을이 보인다.

산포면 내기리 내정부락, 지붕은 초가지붕이 대부분이요 울타리는 한국전래의 상징인 마람 울타리에 길은 좁아 손수레도 다니지 못하는 전형적인 한국 농촌이다.

넓다란 땅을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백위주의 농사만을 짓는 농법으로 가난을 탈피하지 못한 마을을 보는 이마다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이 마을에는 부락을 이끌어 갈 만한 지도자는 없는가하고 생각하던 어느 날, 학생집에 가정방문을 가게된 김에 부락현황을 알아 보았다.

이 부락은 농가90호에 비농가14호인 큰 마을로 농번기가 끝나면 젊은이들은 할일없이 방황,

산포면에서 주먹깨나 쓰는 청년들이 제일 많은 곳으로서 부락민들은 협동심이 없어 부락일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 뿐이며 술집은 많고 윗놀이로 화투놀이를 일삼는 마을이다. 이런 타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여야 하며 또한 어떻게 가난을 탈피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 끝에 이 청년들이 뭉쳐 일한다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들어 그 날 가정방문한 학부모 "나광남"씨를 설득하여 보았다.

물론 앞으로의 각종 기술지원은 새마을기술봉사단원인 본인인 말겠다는 전제조건으로 금년 여름방학 우리학교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유도해봤다. 두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며 설득한 결과 이심전심으로 통한 대화끝에 드디어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상설 새마을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나광남씨는 새마을교육시 여러 지도자들의 자기 부락 소개를 듣고 느낀것이 많았다.

우리마을도 다른부락과 같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받아들여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도우며 건설적인 의견을 모아 협동한다면

안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친구들을 설득하여 모임을 갖고 우리도 지금부터 술집 가지 말고 화투놀이도 하지말자! 그런 시간을 이용하여 새마을사업을 벌인다면 우리마을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마을사람들에게 불어 넣어 주었다.

드디어 마을사람들이 나광남씨를 새마을지도자로 추대하고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므로써 새로운 햇불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2. 새마을기술봉사단원 본격 참여

이 부락의 새마을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이장, 의욕적인 젊은이, 부락중견층의 모임을 가져 좌담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자인 새마을 기술 봉사단원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새마을성공사례를 발표하여 줌으로써 의욕이 충만해 졌다.

우리마을도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사기술을 도입하여 소득을 높이며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부락민을 위한 회관구관장 등을 설치하자는 등 여러안건이 나왔으나 제일 먼저 추진한 사업은 마을안길 넓히기 이었다.

처음에는 내땅, 네땅이 서로 많이 들어간다. 하여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서로서로 양보한 인보정신으로 25개소 700m 중 제일 급한 4개소 250m 길을 내놓고보니 길이 난곳에 경운기, 픽업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 나머지 450m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처럼 자력에 의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행정기관의 뒷받침으로 하수구설치용 시멘트를 지원해 주어 24개소 2,002m를 말끔히 설치하였고 대통령하사금에 의한 공동장고 설치는 온 부락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군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오랫동안 생동감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남자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 동안 좀도리쌀을 모으고 공동작업, 이동구관장등을 설치하여 얻은 자체자금 60만원을 내놓으면서 우리마을도 다른 마을처럼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공동생에서 물 길는 시간을 절약하자는 안전을 내놓아 간이상수도 시설을 전 가정에 설치하였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펄펄 쏟아지자 부녀회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올렸고 왜 진작 새마을사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남자들을 나무란다.

날로 발전하는 이 마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가지붕을 개량하고 지붕에 도색도 하며 담장을 쌓아 체인트칠을 함으로써 환경은 일식되기 시작하였다.

새마을지도자와 봉사단원들의 합한 힘은 더욱 큰 일을 해냈다.

부락민들의 소원이 '부락회관 하나 가져보는 것'이라는 건의를 하여 복지회관을 2층으로 건립하기도 결정하고 부락자체자금과 군비지원 부담으로 70명의 아담한 마을회관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이발소, 목욕탕, 예식장을 겸한 회관, 공동구관장을 마련함으로써 마을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이 이곳에서 결정되며 어린이놀이터는 내일의 이 나라를 젊어지고나갈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수 있는 장소로 크게 기여하였다.

구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곡물 건조장으로 활용되고 마을안길과 국도변의 코스모스, 꽃길가꾸기, 수양버들 가로수는 이곳을 찾는이의 마음에 새희망과 새의욕을 갖게 하고있다.

3. 복지농촌의 꿈 다져

이제는 마을을 방문한 사람마다 이 마을을 부러워한다. 허나 소득이 많지 않은 이 마을은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높일 것인가? 소득원을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옛날부터 양잠과 연초를 재배한 마을이지만 기술부족과 전래 된구습에 의한 누에치기, 담배재배는 다수확 재배의 큰 장애 요인이었는데 상전에 비배관리를 함으로써

뽕나무작황이 좋아지고 양잠농가의 의욕을 북돋아 종전보다 10%가 증수되었다.

누에는 다 치고도 뽕잎은 남아 돌아 인근농가에 분양하여 소득을 올렸고 춘추잠 누에치기 지도로 사육지도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 평면작에 비하여 20%를 증수하였다.

담배재배 상황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농가가 냉상재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온상육묘로 재배한다면 빨리 정식하고 수확기를 길게 할수 있어 온상육묘의 시범을 보인 결과 10일 앞당겨 정식하므로써 조기다수확을 할수있도록 지도하였다. 멀칭재배로 토양수분을 알맞게 하여 우량 품질의 연초를 생산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옷거름주기를 줄이고 수확 1주일전 순자르기와 눈따기 지도를 하였던 결과 담배는 무럭무럭 자라 수확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하엽부터 수확, 음지에서 말리던 재배방법을 탈피하여 조그마한 하우스를 제작해서 건조장화 함으로써 많이 수확하여도 걱정하지 않고 말릴수 있으며 적습을 맞추어 건조함으로써 질이 좋은 연초를 생산하게 되어 전년에 비하여 15%의 증수를 가져 왔다.

농사를 다 짓고 할일없는 이 마을에 겨울철에는 무엇을 할것인가하는 생각끝에 농한기에 누구나 손쉽게 할수있는 새끼꼬기, 가마니짜기를 권장하여 이 부락에서만 해도 30,000장의 가마니짜기를 하여 큰 소득원이 되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마니만 짤 것인가! 시야를 넓히고 보니 이웃 농촌은 비닐하우스재배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새마을기술 봉사단원의 제의를 이마을 새마을지도자가 제일 먼저 받아들여 술선수범키로 했다. 기술지도는 새마을기술 봉사단원이 책임지고 지도하여 과학기술을 이식하기 시작하였다.

4. 기술이식으로 수익 높여

전남 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재배 작물을 조사하였던 결과 오이, 고추, 상치, 쪽갓, 배추등이 주작물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득이 제일 높고 안정된 것이 고추재배라 생각되어 첫 시험재배 품목으로 고추를 재배키로 하였다.

(사진 : 부락민들에게 시설 원예에 관한 기술을 지도하고 있는 새마을 기술 봉사단원)



새마을지도자와 합의하여 9월부터 비닐하우스를 짓기로 하고 그 재료는 목재로 설계, 짓기 시작한지 15일만에 200명의 하우스가 완성되어 고추파종에 들어갔다.

가식하기 2회, 11월초순에 정식하였으며 정식한 후 소형터널을 만들고 보온하기 위한 가마니를 짜서 덮고 온갖 정성을 다해 기른 고추는 결실하기 시작하여 3월하순 첫선을 보였다.

100g짜리로 알뜰히 포장한 100개를 서울남대문 청과물시장에 보낸지 5일만에 대금이 들어왔다. 100봉지에 15만원의 소득을 낸 것이다. 큰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첫해에 125만원의 큰 소득을 올렸으니 200명에서 벼 50가마니가 나온 것이다.

그제서야 젊은 친구들에게도 의욕의 불길이 불기 시작하여서 그 이듬해 재배농가가 5가구로 늘어났지만 고추재배는 그리 쉬운것 만은 아니었다.

한 농가가 보온판리의 잘못으로 고추잎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새마을기술봉사단 전화가 불이 난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가서보니 원인은 저온이었다.

오이디그린을 처리하고 다이센을 살포한 15일만에야 겨우 원상복귀한 고추는 이웃농가에 비해 약간 저조한 편이었으나 80% 이상 수확할 수 있었다.

고추하우스재배가 괜찮다더라 하는 소문은 온 부락에 퍼져 3년째 되던 해는 52호가 참여하여 온 부락은 비닐하우스로 뒤덮고 현재는 농가90호에 83호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가 되었다.

이처럼 과학기술이 농촌에 이식되어 성공을 거두고 파급적으로 번지는 효과가 큰 것을 볼때에 우리 새마을기술 봉사단원은 보람을 느낀다.

이처럼 열과 성을 다해 재배한 고추는 이 마을의 가난을 몰아내기 시작하였다.

200명 하우스 1동에서 280~3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니 경영비 80만원을 제외하고 순수익 200만원을 올린 셈이다.

한 사람의 과학기술자가 이처럼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 마을은 가난을 물리쳤고 농가소득은 400만원을 훨씬 상회하여 나주군에서 제일 소득 높은 마을로 성장하게 되었다.

5. 理想農村 건설에 박차

과학기술이 농촌에 인식된지 4년째, 4년전의 부락모습과 오늘의 이 부락을 보는이의 마음은 놀라기만 하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의 과학기술자의 합심된 힘이 이처럼 무서운 일을 해 낼수 있다는 산 교훈을 남기므로써 감회가 새로울 뿐이다.

이 마을의 한 어귀에서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이 한창이다. 나주에서 광주쪽으로가다보면 도시에어나 볼수 있는 현대식건물들이 마치 비둘기집 처럼 아담하게지어졌고 마을앞에는 온통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곁에서 보기만 하여도 한국의 풍요한 이상농촌을 보는듯 하다.

뒷산에는 배나무, 복숭아, 포도나무 과수원이 들어서고 마을중앙에는 2층 건물의 복지회관이 우뚝 서 이 마을의 앞찬 모습을 보여준다. 회관앞 어린이놀이터에는 이 마을을 젊어지고 나갈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그네타기, 미끄럼타기,회전목마등을 타고 노는것을 보면 전원의 평화로움과 희망이 넘쳐 흐르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건전노래는 일할 용기를 더해준다.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이 마을의 전망은 밝기만 하며 더욱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총매진 하고 있다.